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f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특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이사 2,1-5
 화답송 시편 98(97),1,2-3EF-4,5-6(◎2참조 또
 는 3드르)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음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흡수를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로마 10,9-1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루카마태 28,16-20

성가

- 입 당 18 주님을 부르던 날
- 예물준비 217 정성어린 우리제물
- 영 성 체 504 우리와 함께 주여
- 파 견 6 찬미노래 부르며

미 사 봉 헌

건미사	봉헌
김 학순 김 형일 티노 김 형일 키토 김 세문 다니엘, 전순복 엠마 윤 종문 토마스 이 정진 Antonio 박 현진 스테파노	박 해화 점 봉애 카타리나 표 해심 카타리나 김 인숙 로사 윤 동진 선 명희 노아 김 보나
생미사	봉헌
문 흥빈 양 세안 조 하나 이레나 편 윤아 루시아 가정 백 승훈 야고버 이 영애 레지나 이 정주 소화테레사 허 향연 소화테레사	문 안나 양 미숙 마리아 우리 즐거움의 원천 김 명희 글라라 익명 한 동훈 익명 익명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10월23일	김유화 데레사	김규현 프란치스코	임지수 마리아	임지수 마리아	이지훈 아녜스	한서희 데레사	김민규 요셉
10월30일	백이백 아오스딩	정은철 프란치스코	배수아 마들렌 소피바라	배수아 마들렌 소피바라	민덕미 안젤라	한서희 데레사	김민규 요셉

미사 후 친교 모임

- 일시 : 10월 16일 (일) 미사 후
- 장소 :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우리 성당에 처음 오신 분, 환영합니다.'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 대상 : 가톨릭교회에서 세례 받고자 하는 분들
- 첫모임 : 10월 30일(일) 오전 11:00 Korean Conf.
- 교리시작 : 11월 6일(일) 오전 11:00 교육관 3A
- 세례성사 예정일: 2023년 부활시기
- 문의 : 2층 사무실 347.834.5784

견진성사 교리반 모집

- 대상 : 2019년 이전 세례받은 신자
- 첫모임 : 10월 30일(일) 오전 11:00 Korean Conf.
- 교리시작 : 11월 6일(일) 오전 11:00 Korean Conf.
- 견진성사 예정일: 2022년 성탄시기
- 문의 : 2층 사무실 347.834.5784

미 동북부 혼성 제2차 꾸르실료 교육

- 일시 : 2022년 11월 3일(목) ~ 11월 6일(일)
- 장소 : 뉴저지 St. Paul John II Retreat Center
- 대상 : 세례받은지 2년 이상 된 신자로 본당 신부님 추천 필요
- 신청 : 본당 울뜨레아 간사, 10월 25일(화)까지

청년성서모임 2022년 가을학기 그룹원 모집

- 대상 :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받은 청년
- 모집과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 모임장소 : 다미아노 홀(예정), 신청마감: 10월 29일(토)
- 개강미사 : 11월 12일(토) 오후 6시
- 문의 : 대표봉사자 김 야고보 201.912.7577
- 신청링크 : <https://forms.gle/iqP4g7iRn7eGgXfe9>

'하늘처럼' 성가대 단원 모집

- 하느님 마음에 드는 성가를 함께 노래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성가는 두 배의 기도입니다.' St. Augustine
- 문의 : 노 데레사 917-692-6447

교무금, 미사예물등 접수

'10월 30일부터 미사후 다미아노 홀에서 받습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2. 온라인 주보의 경우, <우리들의 정성> 코너는 삭제되며, 성당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인쇄본 주보에만 게시됩니다.
3.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실 경우, 보내실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송금 후 수녀님 전화 : 347-834-5784 로 연락 바랍니다.
4. "기부" 버튼을 클릭하시면, 한인공동체 교무금이 아니라, 미국 본당을 위해 사용됩니다.

묵주기도 성월 기도

◆ **성모 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하소서.
- ◎ 기도합니다.
하느님,
외 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마리아와 함께 이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단체모임 안내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교육관 1B
요셉회	셋째 주일 11:00	교육관 1B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교육관 1B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아래성당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Conf. Rm(2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 18:00	Conf. Rm(2F)
예수성가정회(FYMN)	넷째 주일 11:00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	Conf. Rm(2F)
'신명' 풍물패	2, 4 주일 14:00	교육관 3A
청년회	매주 주일 11:00	교육관 2A
하늘처럼 성가대	매주 주일 08:30-13:30	교육관 3B
예비신자 교리반	매주 주일 11:00	교육관 3A
건강성사 교리반	매주 주일 11:00	Korean Conf.
구세주의 모후 Pr.	매주 주일 08:00	교육관 1B
우리 즐거움의 원천 Pr.	매주 주일 10:30	교육관 2D

2022년 10월 교향님 기도지향

모든이에게 열린 교회

“언제나 복음에 충실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연대와 형제애와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 공동합의성을 실천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해주세요

투병 중이신 분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5

- | | |
|----------------|------------|
| 김순한 (루시아) | 김옥지 (아가다) |
| 이경희 (미카엘라) | 김동희 (헬레나) |
| 정창동 (폴리나) | 지군자 (스테파니) |
| 진정은 (마리아) | 이진자 (세실리아) |
| 고종호 (마태오) | 이병국 (요한) |
|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 박명순 (모니카) |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op@nestseekers.com
(917)370-0394

ISC NEW YORK
International Student Consulting
졸업/OPT 후 진로고민 및
진학/취업/자기소개서/면접준비 무료상담
iscnewyorkmetro@gmail.com
1-917-386-7405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원조
NEW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nycacu

광고주를 찾습니다


광고주를 찾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2022년 전교 주일 담화(요약)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1,8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사도1,8) 이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알고 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교회가 그 본성상 선교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1.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

제자들이 세상 밖으로 파견된다는 점에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 가르침의 요점이자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선교사’로서 가장 먼저 파견되신 분으로, (요한 20,21참조) 하느님 아버지의 ‘성실한 증인’이십니다. (묵시1,5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알려야 하는 사명 외에는 다른 어떤 사명도 없습니다. 복음화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2. ‘땅 끝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복음화라는 사명의 항구한 타당성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시며, 또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사도 1,8) 그들이 파견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땅 끝에 이르기까지’라는 말은 모든 시대의 예수님 제자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하고, 제자들이 자신에게 익숙한 지역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증언하러 나아가도록 다그쳐야 합니다. 현대의 동력이 지닌 온갖 이점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그리스도의 선교하는 증인들이 아직 다다르지 못한 지역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고자 부단히 경계를 뛰어넘어 나아가야 합니다.

3. ‘너희가 성령의 힘을 받을 것이다.’- 언제나 성령의 힘과 인도를 받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 증인이 되는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 크나큰 책임에 필요한 은총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성령의 감도와 도움 없이는 주 그리스도를 온전히 참으로 증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선교하는 제자는 모두 성령의 활동이 지니는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날마다 성령의 현존안에 머물며 성령의 힘과 인도를 받도록 부름 받습니다.

저는 기도가 선교의 삶에서 근간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기쁨과 새로운 힘의 마르지 않는 거룩한 샘이신 성령께서 생기와 힘을 주시도록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온전히 선교하는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하는 선교활동의 새 시대를 꿈꿉니다. 참으로 교회 안의 우리가 모두, 세례의 힘으로 이미 예언자, 증인, 주님의 선교사가 되었던 본연의 우리가 모두 성령에 힘입어 땅 끝에 이르기까지 예언자, 증인, 주님의 선교사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들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